

희성전선(주)

21세기 초우량 전선 메이커 발돋움

— 1인당 생산성, 업계 최고 수준으로
해외시장에서 호평 —



대표이사 배 은 출

- '68년 (주)금성사(현 LG전자) 입사
- '86년 금성전선(주)(현 LG전선) 이사
- '92년 금성전선(주)(현) LG전선 전무이사
- '94년 ~ 현재 희성전선(주) 대표이사

희성전선은 1947년 국내 최초의 전선회사로 출발하여 국가 기간 산업인 전력망, 통신망의 구축에 일익을 담당하여 왔으며, 지속적으로 최적의 제품을 생산·공급함으로써 고객과의 신뢰를 쌓아 오고 있다.

생산품은 전력, 통신케이블 및 광케이블, 연속주조방식 Line에서 생산하는 銅로트이다. 산업사회의 고도화와 건물의 고층화 및 고밀화에 따라 케이블망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재해시 기능을 유지하면서 인명보호를 위한 난연·저독 소방용케이블을 생산하고 있으며, 정보화 사회의 발전에 따른 초고속통신이 가능한 광케이블을 공급하고 있다. 또, 낙뢰 방재기능과 통신선로의 기능을 복합한 광복합가공지선(OPGW)은 세계 최고의 특성을 가지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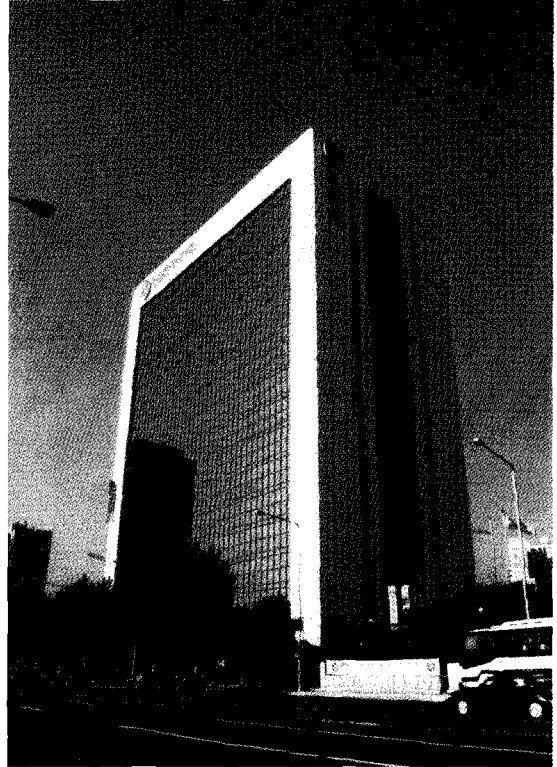


ISO 9001 인증서 수여식

희성전선은 사내 경영정보체계의 핵심인 우수한 생산관리 전산시스템을 개발운영하여 고객에게 최적의 제품품질과 최상의 납기준수를 할 수 있도록 주력하고 있다. ISO 9001 품질인증과 국내외 관련 인증을 확보하고 유럽, 미주, 일본, 중국, 러시아, 동남아 등 대단위 전력·통신망 프로젝트에 제품을 공급하고 있다.

1986년 6월에 설립한 부설 기술연구소에서는 주로 전선재료 및 특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고차폐형 제어신호용 케이블을 개발하여 고속철도용으로 납품하는 한편, 새로운 전선의 Needs를 포착하여 고객이 원하는 품질을 확보하고 사용 편의 중심의 제품과 고기능 특성을 지닌 제품 개발연구에 투자하고 있다. 제품서비스 외 운용, 시공 전문분야에 걸쳐 기술적 지원을 하고 있다.

경영면에서 희성전선은 사업다각화를 통한 외형신장보다는 각종 전선의 특화를 통한 내실위주의 경영을 하고 있다. 고객으로부터 품질에 대한 호평과 함께 일찍이 장치산업으로서의 특징을 살리기 위해 설비의 자동화, 합리화 레이아웃에 투자한 결과 1인당 생산성이 업계 최고 수준으로 최상의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



희성전선 본사가 위치한 엘지마포빌딩

성장사

항업과 아월곡동 시대의 개막(1947~1970)

희성전선은 1947년 9월 국제전화건설주식회사가 설립되면서 50년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창업 당시는 전기통신설비 외 부속 설비에 대한 건설공사를 하면서 사업의 초석을 다졌다.

6·25사변 이후 전후복구 사업이 활발해짐에 따라 대형빌딩 혹은 관공서의 전화배선공사를 하청 받아 구역배선 작업을 하거나 자석식 전화기 조립, 구내전화 교환기 설치·유지보수 등의 사업을 하였다.

경영규모가 커지면서 회사는 일본, 서독 등지에서 수입한 전화 및 전화교환기 부품을 구입, 조립 판매함으로써 우리 나라 전화 교환기의 본격적인 생산시대를 개막하는데 동참하였다.



신국제문화 창조과정(조직활성화 과정)

군포공장 시대의 개막(1970~1977)

1971년 현 공장이 위치한 군포 부지에 공장을 건설하게 되었고, 제조설비를 일본 등지에서 들여와 스타페스 케이블 및 XLPE(CV) 전력케이블을 생산하였다.

이로써 일정규모의 생산능력을 갖추으로써 해외시장의 진출이 본격화되었다.



고객초청 세미나

내실경영에 의한 성장(1977~1990)

최신식 설비 도입에 따른 생산규모의 확대와 관남 중심의 영업으로 내실경영을 통한 성장을 이룩하였다. 각종 해외규격을 취득하였으며 기술연구소를 설립해 제품의 품질 향상 및 제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였다. 그리고 전주에 통신케이블 공장을 분리·건설하여 통신망 확충에 따른 수요에 대비하였다.

도약하는 의성전선(1990~현재)

이 시기에는 기업 신문화의 정착, 독립적인 경영전략 추진과 사업부제 시행 등으로 조직의 정비와 경영 내실화를 꾀할 수 있었다. 복리후생제도 보강 및 시설의 확장, 그리고 시판, 수출 중심의 체제를 구축하여 회사의 위상을 한층 드높였다.

국내 및 해외 세미나를 연이어 개최하였고 국내외 인사 및 바이어의 공장 방문이 쇄도, 경영 활성화가 이루어졌다.

1996년 회성그룹이 출범하면서 '회성전선'으로 상호를 변경한 후 21세기 초우량 전선 메이커로 발돋움하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하고 있다.



회성전선 군포공장

제품소개

광통신케이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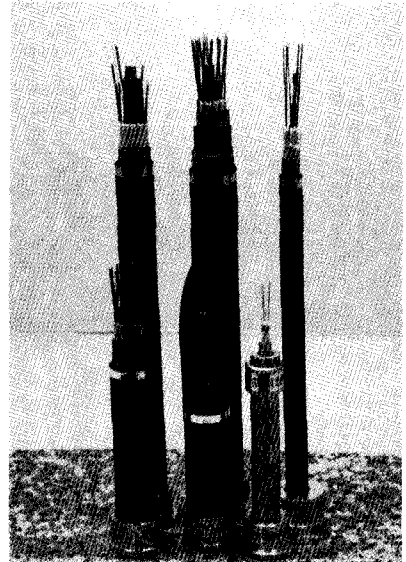
희성전선은 1997년부터 일본 소화전선과 기술계휴로 광통신사업을 본격화하였다.

초고속 정보 전송이 가능한 광통신 시스템은 광섬유 통신 방법으로 광을 반송파로 하는 음성, 화상신호 등을 전기신호로 바꾼 뒤 이를 빛의 강약 또는 유무의 광신호로 바꾸어 전송로인 광섬유를 통하여 음성, 화상 등의 신호를 전달하는 방식이다.

석영유리(광섬유)코어에 보호 코팅 및 외부 피복한 광통신케이블을 개발함으로써 종래의 금속도체 케이블에서 실현하지 못했던 광대역, 저손실, 무유도 전송선로를 가능하게 하였으며 이를 이용한 산업 각계의 장치와 통신시스템 적용분야에 급성장을 가져왔다.

광통신케이블의 이용분야는 광범위하여 광대역 통신망, 데이터 통신 장거리 간선용, 근거리 국간 간선용, 위성통신분야로도 파급되어 방위산업, 전력계통 감시 시스템, 컴퓨터정보처리 시스템, 의료정보시스템 등에 이용되어 통신기술 혁명을 선도하고 있다.

희성전선은 현재 전주공장에서 연산 50만fkm를 생산하고 있으며 2000년까지는 100만fkm 규모의 물량을 양산할 계획이다.



광통신케이블

광복합가공지선(OPG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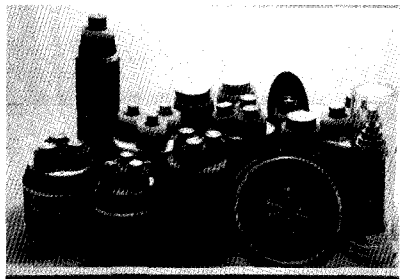
희성전선은 올해 시공기간을 30% 단축할 수 있는 광복합가공지선(OPGW)을 개발했다.

OPGW는 철탑 사이를 잇는 송전선을 나뉘로부터 보호하면서 동시에 케이블 내부에는 광케이블을 내장하여 고속정보통신선로에 이용되는 특수케이블을 말하는 것으로서 희성전선은 스위스 부르그텔레콤사로부터 도입한 기술을 토대로 2년간의 연구 끝에 새로운 OPGW를 개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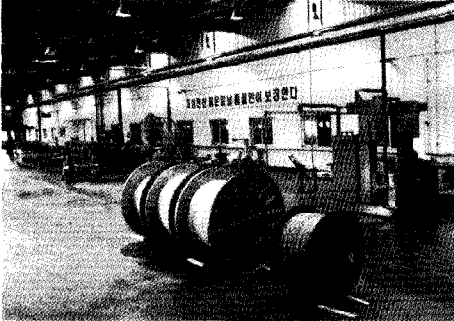
희성전선의 OPGW는 설치속도가 빠른 것이 강점으로 꼽힌다. 드럼에 감은 OPGW를 설치하기 위해 풀 때 케이블 자체가 한쪽 방향으로 꼬이는 현상 때문에 설치가 더더지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OPGW를 2개층 구조로 만든데다 각 층을 서로 다른 방향으로 꼬아 특정 방향으로 꼬이는 현상을 없앴다. 종전에는 광섬유를 알루미늄 튜브에 넣었으나 이를 압축강도가 높은 스테인리스



동통신케이블



고압케이블



광통신케이블 생산공정



소화전선과 기술제휴

튜브로 대체, 불량발생을 최소화한 것도 시공기간 단축에 기여했다. 또한 기존 OPGW보다 3배 가량 많은 정보를 전송할 수도 있다.

특수케이블

회성전선은 케이블 전문제조업체로서 전력·통신케이블을 산업체 및 전력 통신망 운용 고객에게 서비스하고 있다. 산업사회에서 정보화 사회로의 이행이 급진전되면서 제품의 고신뢰성, 고기능화에 부응하는 신제품을 내놓고 있다. 고차폐신호케이블, 데이터 케이블, 수밀형케이블, 저독 난연케이블, 내열알루미늄선, 광·전력복합케이블 등을 보급하고 있다. 향후 고집적 리본형 광케이블 생산도 추진하는 등 수요를 리드하여 고객과 가까이 하는 회성전선은 광복합가공지선(OPGW)과 광케이블 외에도 송배전선, 절연전선, 전력케이블, 제어용케이블, 소방용케이블, 엘리베이터케이블, 통신케이블 등 범용전선을 생산하여 국가경쟁력 강화와 기간산업 발전에 이바지하고 있다. 특히 1997년에는 신호용케이블의 하나인 고속철도용케이블을 개발하여 현재 생산 납품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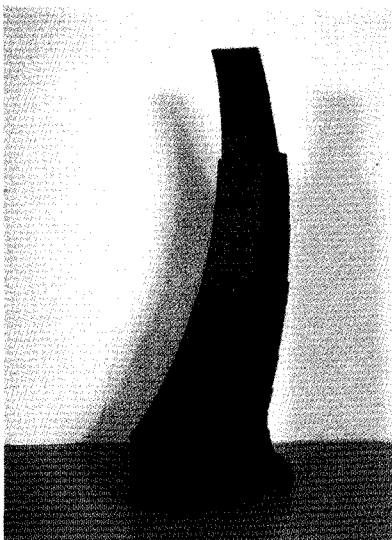
회성전선은 이외에도 각종 특수용도의 제품을 개발하여 국가 경제 발전을 위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경영혁신 및 투자현황

업계최고수준의 1인당 생산성

회성전선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끊임없이 노력하여 왔다. 1998년을 기준으로 5억원이 넘는 1인당 매출액을 기록하고 있다. 1인당 매출액 5억원 은 한국의 제조업계에서는 물론 일본업계와 어깨를 마주할 수 있는 경쟁력이다. 회성전선이 1인당 매출액 5억원을 달성하기 위해서 우선적으로 행한 일은 과감한 시설투자이다. 전선제조업이란, 장치사업이므로 설비투자를 하지 않고서 매출액을 높일 수 없는 일이다. 회성전선은 1997년 150억원을 투자하여 광케이블 제조설비를 갖춘 이래 고부가가치가 높은 제품들을 생산 또는 투자계획중에 있다. 생산성을 높이는 또다른 축은 지속적인 구조조정으로 인한 효율적인 인력운용이다.

업무의 공백을 최소화하면서 인원을 줄이는 일은 합리적인 경영 및 전산시스



5천만볼 수출탑

템에 의해 가능하게 되었으며, 각종 Skill활동이나 Workshop 등을 통하여 보다 나은 생산성 향상을 위하여 노력한 결과라 할 수 있다.

경쟁력을 뒷받침하는 전산시스템

희성전선은 1999년 3월 1일부터 전산환경을 기존 IBM Host에서 Client Server로 완전 전환하여 연간 전산 사용료를 '97년도 기준하여 약 4억원 정도를 절감할 수 있게 되었다.

희성전선은 이번 전산환경의 이행을 통하여 비용절감 뿐 아니라 Y2K 문제를 해결하였고, 세금계산서, 거래명세서를 제외한 전출력물을 A4용지로 규격을 통일하여 자료관리 및 이용에 획기적인 전환을 이루게 되었으며 24시간 Full Service가 가능하게 되었다.

현재 희성전선은 영업, 생산, 자재, 수입, 인사, 회계, 관세환급 등 업무의 많은 부분들이 전산화되어 있는데, 그중에서 영업 및 생산관리시스템은 고객에게 보다 신속한 납기가 가능하도록 지원한다. 또한 전자우편시스템(E-Mail), 홈페이지(www,hscable.co.kr)도 개설 사용중이다.

미래지향적인 연구개발

희성전선은 1986년 신설한 연구실을 확대 개편하여 '국제전선주식회사 기술연구소'를 설립했다.

설립 당시에는 전선용 소재 및 관련 소재의 연구개발에 주력하였으며 주요 연구분야는 금속재료분야, 고분자분야, 전기·전자분야 등이었다. 금속재료분야에서는 단기적 도체의 특성과 생산효율을 향상시키기 위한 연구와 특수 목적용 도체의 국산화를 위한 합금기술의 개발 및 제조설비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고, 고분자분야에서는 내열 및 난연 Grade 개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전기·전자분야에서는 OA, FA(공장자동화) 기기의 보급확대와 신뢰성 및 편의성을 갖춘 통신수단의 발달에 따른 전송로 특성에 맞는 전선의 개발이 진행되었다.

최근에는 내열, 난연케이블, 소방용케이블, 엘리베이터케이블 등을 지속적으로 개발, 향상시켰으며 무공해케이블인 Halogen-free 케이블을 개발, 국내는 물론 해외에 수출하였고 광케이블, OPGW, 고속전철용케이블 등 고부가가치의 케이블을 연구 개발하였다. ❏

희성연혁

- 1940년대
 - '47년 국제전선공업주 설립(국내 최초의 전선회사)
- 1950년대
 - '57년 국내 최초의 PVC 전선 및 통신케이블 생산 개시
- 1960년대
 - '65년 KS표시 허가 취득
- 1970년대
 - '72년 일본 소화전선과 기술 제휴
 - '73년 현 군포공장으로 이전, 생산 개시
 - '74년 STALPETH 및 ALPETH CABLE 수출 개시
 - '76년 XLPE(C/V) 전력케이블 생산 개시
 - '77년 럭키금성그룹에 편입
- 1980년대
 - '82년 SECTOR, FORM-SKIN CABLE 생산 개시
 - '83년 한국통신공사 납품자격 획득
 - '84년 국제전선임대 상호 변경
 - '86년 군포공장에 기술연구소 설립
 - '88년 전주공장 준공 및 생산개시(통신케이블 생산 공장)
 - '89년 자본금 100억으로 증자, 품질관리 1등급공장 자격취득
- 1990년대
 - '90년 세계에서 두번째로 KCB LINE(연속조압연설비) 준공
 - '93년 SHAFT로 준공, 5천만발 수출의 탑 수상
 - '94년 자본금 130억원으로 증자
 - '95년 LG GROUP에서 분리, ISO 9001,9002 인증
 - '96년 희성그룹으로 출범, 희성전선으로 상호변경
 - '97년 광통신케이블 생산개시, 회사창립 50주년
 - '98년 스위스 Brugg사의 기술제휴(광복합 가공지선 등) OPGW(광복합 가공지선) 생산 개시, 제1종 전기공사업 진출